

'40만 대이동' 대학별 고사 남았다 '방역 고삐'

전국서 22일까지 논술·면접·실기 등 60만3000건 진행
대학도 방역 강화... 전남대 이번주 모든 면접 비대면으로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데 이어,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 고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교육·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6일 교육·방역당국은 지난 주에 이어 오는 22일 까지 전국 대학에서 60만 3000건의 대면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의 지역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방역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고 밝혔다.

입시를 치르는 주요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는 차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수도권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의 지역 이동이 빈번해져 감염의 위험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층은 무증상 감염자 비율도 높아, 대학별 고사가 전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능 직후 주말(5~6일)에 20만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이미 대학별 고사를 치렀고, 오는 12~13일에도 20만명에 달하는 수험생의 평가일정이 있어 40만명 이상의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수험생들이 수시에 맞춰 이동할 경우 최소 3만여 명이 한 두자리 이상은 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의 중점 목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수능 이후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평가에 따른 전국 단위 이동이 이뤄지고 있고 대학 내 수험생 밀집이 예상된다"며 "수능이 끝난 후에도 친구·지인 모임은 잠시 미루고 안전하게 이후 일정을 준비할 것을 당부드

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여러 차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각 대학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평가를 확대하라고 주문했지만 논술·실기 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면평가가 불가피한 데다 면접도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 대면·비대면 평가가 병행되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오는 22일까지는 '대학별평가 집중 관리기간'으로 운영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도 대학별 고사 방역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12~13일 논술고사가 예정돼 있는 중앙대는 시험 시행 이를 전 캠퍼스 전체를 '셧다운'하고 방역·소독을 진행한다.

승실대는 오는 12·13·19일 진행되는 학종 면접

을 최근 대면평가에서 실시간 비대면평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서류 합격자는 확진자까지 모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부터 면접을 실시하는 전남대도 수험생들의 접촉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모든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능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평이하다는 평가여서 대학별로 진행하는 논술과 면접이 수험생들에게 더 중요해졌다"며 "수험생들이 여러 대학과 지역을 이동하며 수시 전형을 치르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대학별고사 응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22개 별도고사장 348개 별도시험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자가격리자의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확진자는 일부 면접전형을 제외하면 응시가 제한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생 안전 교육 강화

전남교육청이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코로나19' 감염과 각종 사건·사고, 범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도 교육청은 중앙·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예방·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개선, 청소년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 등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단위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실천 지도에 나서고, 지역 내 학생생활지원단을 활용해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주변 빈집 등 취약 지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지역 사회와 연계해 수능 이후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비행·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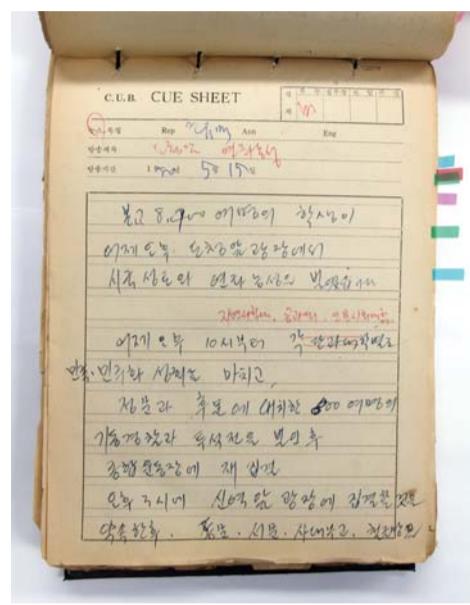
이웃에게 전할 '사랑의 김치'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동천봉사회는 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적십자봉사관에서 봉사원 및 농업회사법인 무주공 산(주) 남식 대표와 함께 장애인 가정 1000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열무김치를 담그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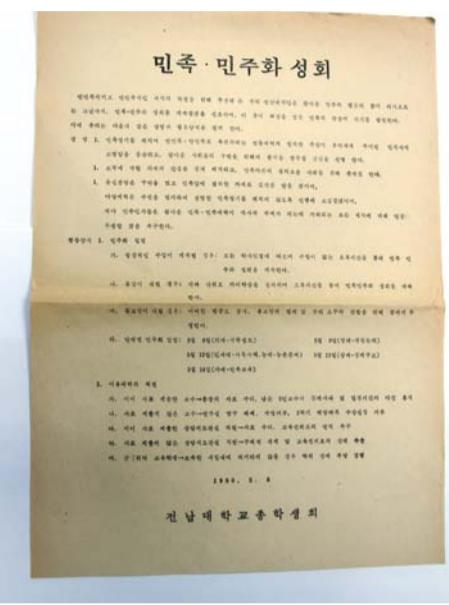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18 사흘 전 학생기자들의 뉴스는?

전남대방송국서 뉴스 원고 발견...서클 활동 자료도



전남대방송 뉴스 원고.



민족·민주화 성회 유인물.

"김대진 학생처장과 교수평가회의장단이 도경찰과 합의한 후 6시 5분에 해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유경남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이 자료는 1980년 5월 상황을 학생기자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으로, 당시 전남대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활동도 확인되는 원본 자료"라며 "역사성과 희소성이 큰 만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포함돼야 할 기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발견된 자료 가운데 '민족문화근간' 철은 1980년 4월 말~5월 초 사이에 사회과학 서클 'RUSA', 문화활동 서클 '열심', 용봉문화동인회, 국문과·국어교육과 학생들이 중심이 된 '민족문화연구학회'가 주최하고, 전남대 총학생회가 후원한 행사 자료집이다.

이밖에 발견된 기록물은 '민족·민주화성회' 유인물과 '제1시국선언문' 등을 포함해 5·18 관련 문서 61점, 사진 43점 등 모두 104점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호남·제주권 1위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가장 높은 사립대학으로 꼽혔다.

6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2020 대한민국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에서 조선대가 호남(광주·전남·북)제주권 사립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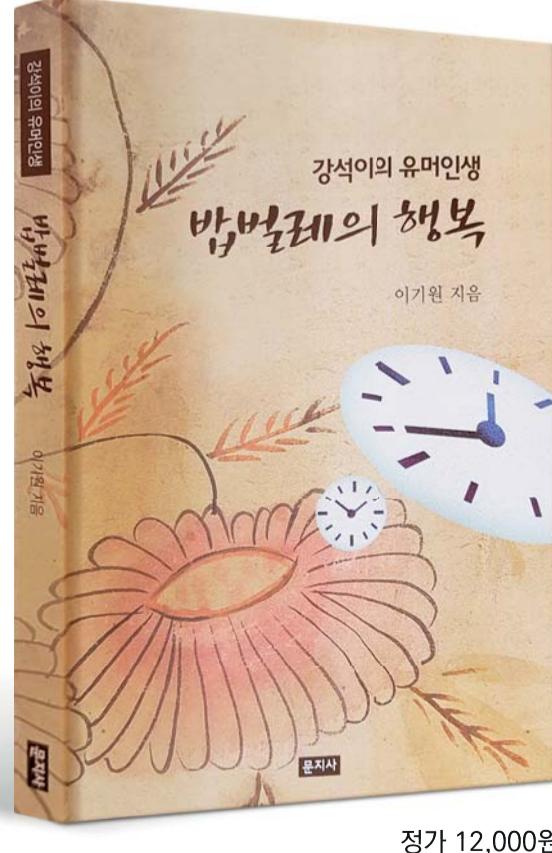
'2020 대한민국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는 르몽드디플로마티크·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공동으로 기획·시행한 사립대학 종합평가다. 전국 151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

사는 대학이 학생과 교수,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교수와 학생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비롯, 비정규직 비율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공개 강의 실적 등 소통·상생의 관점에서 대학을 바라봤다.

조선대는 총점 563.01점을 받으며 호남권 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노동·환경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밥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정가 12,000원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밭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
요양원